제5절 서천지역 민속음악의 특징

노동요를 통하여 서천군의 민속음악을 살펴보았다. 서천군의 노동요는 충남지방적 특색과 아울러 서천 만의 고유한 색깔을 지닌다. 부여군과 보령시에 인접해 있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와의 문화적 내왕이 많다. 유장한 서천형 모심는소리를 개발하였고 외산정형과 같은 더욱 독특한 벼바숨소리를 발달시켰다. 나비질소리는 부여군과 함께 그 전파의 중심에 있다. 논맴소리로는 긴 입말형이 주로 불리우며, 충남의 대표적 논맴소리인 얼카덩어리 류가 발견되질 않았다. 달구질소리가 전하질 않는다.

'서천형' 모심는 소리는 '에헤야' 와 같은 입말 뒤를 '사헤가 네로구나' 라는 류로 여밈을 받음구의 특징으로 하며, 전국에서도 서천군과 그 인접지역인 부여군 옥산면에만 전파되어 있는데, 그 문화중심(cultural center)은 동북부 서천군이다. 전북이 문화중심인 농부가형 상사도 잦은 모심기 소리로 활용되는 등 일부지역에 전해져 있다.

논맴소리는 호미로 매는 아시매기 때나 두벌매기, 또는 손으로 훔치는 만물매기에 관계없이 받음구가 '위' 나 '어' · '아' 등으로 운을 떼는 긴 입말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에염쌀 때는 '먼들소리' 라 하여 역시 입말형의 가사를 1회 길게 제창하든지 또는 잦은 논맴소리 형태로 멕이고 받는다. 충남의 대표적인 논맴소리인 얼카덩어리 류는 불리우지 않는다.

다양한 수확요가 발달되어 있음은 서천군을 포함한 서부 충남지방의 특색이다.

서천군의 벼베어 세우는 소리는 동부 부여군에 위치하는 옛 석성현 일대의 논맴소리를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벼바숨소리로는 충남의 일반형 이외에 둘째번 메김구를 반으로 나누어 앞에다 '에야하' 라는 고정구를 붙여 메김소리꾼과 받음소리꾼이 교대로 부르는 두 유형의 서천형을 발달시켰다.

나비질소리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노래인 바, 그 문화중심은 서천군과 부여군이다. 받음구 예는 "어기여라 나비허"이다.

서해안의 만선 풍어노래인 배치기(봉죽타령)를 서천군에서는 '덕타령' 이라 이름하는데, 이는 위쪽 해안에서 전파된 것으로 형태가 온전하다. 어야디여차 류의 노젓는소리 · 그물당김 · 닻감는 소리 등이 수집된다.

집터다짐소리는 차류이다. 다리 말박을 때의 상사류와 저수지 말박을 때의 "어이또 쫀다"도 녹음된다. 경상도가 본고장인 차류와 전라도의 상사류가 공존함은 충남지방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운상(運喪)소리로는 비(非)넘차류의 두마디 어허소리가 주를 이루며, 잦은소리로는 한마디 어허소리가 불리운다. 그러나, 넘차류의 전파흔적이 없지는 않다. 상여를 올려메거나 내릴 때는 요령을 잦게흔들면서 "우여 우여 우여 우여"한다. 흙가래질소리가 어렵지않게 녹음된다. '우여 우여' 소리나 비넘차류의 운상소리는 충남지방의 일반적 현상이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북과 마주하며 바다를 통한 전남 해안지방과의 접촉이 지속되어 온 관계로 복합선법의 존재와 아울러 육자배기선법이 곡에 따라 이따금 나타난다. 판소리 명창인 이동백(1866~1950)은 종천면 도만리에서 태어나 유년과 소년시절을 서천군에서 성장하였다.

〈참고문헌〉

황의천, 1992, 「개항기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수, 2005, 『명창 이동백』, 도서출판 분지, 241쪽.
서재만, 1993, 「서천군의 민요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서천문화원, 1998년, 『내고장 서천,향토사 연구』, 197쪽.
문화방송국, 1995년, 『한국민요대전 –충청남도민요해설집–』, 301쪽
이소라, 2001, 『농요의 길을 따라』, 밀알, 13쪽.
이소라, 1992, 『부여의 민요』, 부여문화원, 60쪽, 109쪽 이하.
이소라, 2004, 「논산의 노동요」, 『논산시지』, 논산시.
이소라, 2003, 『충남지방의 상부소리』, 문화재청.

집필 : 이 소 라(민족음악연구소 소장)